

무용예술학연구 제22집 가을

## 명인, 강태홍의 춤 연구

윤 여 숙

전 부산예술대학 교수

I. 서론	사진참조
II. 강태홍의 가계와 예술활동	참고문헌
III. 강태홍의 춤과 미의식	Abstract
IV. 결론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명인 강태홍의 춤에 대해서, 그의 출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인간적 정서를 통해 그 예술적 미감을 탐구하고, 인간본질의 정서 속에서 어떻게 성립되어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 그가 남긴 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미의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 예인 강태홍(1893-1957)은 가야금 산조의 명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원래 다재다능한 예인으로서 춤에도 능하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 시대의 모든 예인들은 대부분 악과 무에 능하였으며 고수로 유명한 한성준이 한영숙에게 살풀이춤을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가야금으로 유명한 강태홍이 그의 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현존하는 극소수 제자와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그가 남긴 가야금 산조 한바탕과 함께 굿거리춤, 입춤, 승무, 산조춤 등이 현재에도 부산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 민족정서

의 맥을 잇고 있는 다양한 전통춤의 레파토리 부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연구는 전통춤 발굴과 관련하여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에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강태홍의 춤 내용과 춤사위, 그리고 미의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강태홍은 그의 생존 시에는 가난하였고 불우한 생애를 마쳤다. 그러나 그가 작고한 후에야 비로소 그의 명성이 빛을 얻었고 명인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비록 예인 강태홍은 이미 선인이 되었지만 그가 남긴 예술작품을 통해 한 인간의 예술적 삶과 그의 독특한 춤의 세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전통춤의 세계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연구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자는 부산지역에서 3대째 춤 가계를 잇고 있는 춤꾼이다. 본인의 외조부 김동민(1910-1999)은 1940년대 어지러운 시대에 동참하지 않고 풍류를 즐기시다 우연히 예인 강태홍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강태홍의 예기에 감동을 받아 자신의 장녀 김온경(1938년 생)에게 춤을 사사하게 하였다. 강태홍이 출타하였을 때는 직접 춤을 그의 딸에게 복습시켰으며 자신도 춤을 추게 되었다. 그 후 부산 최초의 무용학원인 '민속무용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서 김동민은 근대 부산춤의 1세대가 된다. 그때가 1948년 이였고 김온경은 권번기녀가 아닌 일반가정의 학생으로서는 드물게 우리춤(당시 고전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으며, 지금까지 부산에서 70여 평생을 춤꾼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강태홍은 근대 부산춤의 초석이 되며 김동민의 장녀 김온경은 부산춤의 2세대가 된다. 그리고 김온경의 장녀가 본 연구자인 윤여숙으로 한 집안에서 춤 3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정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산 춤 3대의 가계를 잇게 한 그 모태가 되는 강태홍의 춤과 미의식의 세계를 생생한 증언과 체험담 그리고 타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인용한 선행논문의 많은 부분들이 본인 외조부(김동민)의 실담에 근거하였음을 밝히며, 그리고 춤에 대한 모든 것은 강태홍의 춤 직계제자인 김온경의 증언에 의해 연구하였음을 부연한다.

## II. 강태홍의 가계와 예술활동

### 1. 강태홍의 출생 및 가계

강태홍의 집안내력과 출생에 대해서 본 연구자의 외조부께서는 잘 알지 못하셨다. 단지 한말 개화기에 태어난 마지막 광대의 후예라고만 알고 계셨다. 그리고 1940년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알고 계셨다. 강태홍은 그 누구에게도 그의 집안내력과 성장과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외조부께서 강태홍의 출신내력에 대해 모르시는 것도 당연하였다.

그 후 1989년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가 부산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고, 강태홍 가야금 산조의 마지막 제자인 신명숙님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로부터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가 발족되어 당시 보유자 신명숙의 제자 백혜숙을 주축으로 강태홍의 출생지인 전남 무안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강태홍의 출생과 유년에 대한 모든 흔적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강태홍의 집은 대대로 이어온 세습무 집안으로 당골 집안이었다. 강태홍의 부친 강용안은 어전 광대로 이름 높았던 강용한과 동일인물로서 당대의 명창이었다. 강태홍은 1893년 3월 21일 전라남도 무안군 외읍면 교촌리 664번지에서 부친 강용안과 모친 정가매의 4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세습무 집안의 내력으로 무가, 무무, 무악 등 가업으로 이어온 예가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강태홍의 부친 강용안은 강용환으로 대개 알려져 있으며, 그가 태어난 시기는 186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용환은 고종시절 어전광대로서 사고참봉(史庫參奉) 벼슬을 하였으며 당대 명창으로 우리나라 창극의 창시자였다.<sup>1)</sup> 또한 강용환은 서편제의 거성 이남치 문하에서 소리를 익혔고, 서당에서 한학을 배워 책을 가까이 하는 선비형 이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득음하여 정정열, 이동백 등 당시의 명창들과 어전광대로서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김동민과의 대담에서 강태홍이 평소 한 어전광대에 대해 이야기했던 내용을 회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백혜숙(1994). 『강태홍의 생애와 음악』, 도서출판 민속원, p. 103.

한 광대가 어전에서 밤이 늦도록 소리를 하였는데, 너무 졸려서 그만 앞드려 깜빡 졸게 되었다. 그 때 고종께서 ‘소리광대 어디 갔느냐’ 라고 하셨는데, 순간 그 광대가 장단에 맞추어 앞에 놓친 소리를 다라내면서 천천히 머리를 들며 부채를 들어 발림하면서 소리를 다시 이어 갔다. 고종 임금님이 그 모습이 안쓰럽고 대견하여 소리를 그치게 하고 쉬게 하였다.<sup>2)</sup>

이러한 일화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전광대가 바로 강태홍의 부친 강용안의 일화였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강용안은 1900년 경 38세에 평양에서 소리를 가르치다 역병에 걸려 요절 하였으며, 평양 기생들이 상복을 입고 강용안의 운구를 메고, 상여소리 대신 판소리를 부르면서 고향인 무안까지 갔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한편 강태홍의 형 강태종(姜太種)은 뛰어난 대금 연주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당시 명창으로 활동을 하였던 강남중(姜南中)은 강태홍과는 사촌동생으로 어릴 적부터 입방울 명창과도 동문수학 하였으며 병창에도 능하였으며 오현(梧峴)이라는 호를 백범 김구 선생이 지어주었을 정도로 독립운동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강태홍의 큰아버지인 강준환은 소리와 해금, 피리 등에 뛰어난 명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sup>3)</sup>

이렇게 강태홍은 대대로 이어온 세습무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명인명창집안 가계의 내력으로 가무악의 예기를 핏줄로서 대물림 된, 천부성과 천재성을 고루 갖춘 타고난 예인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강태홍은 그의 가계와 유년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하였기 때문에 구체화된 기록은 없다. 단지 그 후손과 그를 평소에 가까이 접하였던 인맥을 통하여 그의 유년시절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여기에서 밝혀 둔다.

강태홍이 언제부터 춤을 익혔는지, 그가 가야금을 누구에게 사사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선대로부터 무업을 하였던 관계로 가무악의 학습은 태어났을 때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여덟 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고 그 후 광주 신청(神廳)<sup>4)</sup>에서 한동안 있었다고 한다.<sup>5)</sup> 그는 이곳에서 실제로 많은 가무악의 체험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15세가 되는 무렵 황복녀에게 장가를

2) 1994년 6월 2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필자와의 대담.

3) 백혜숙(1994), p. 104.

4) 당시 각종 예인(재인, 광대, 무걸, 무당, 기녀)들이 모여 기예를 서로 교류 하면서 학습하였던 관사.

5) 앞 글.

들었는데, 이 황복녀는 무안군 압해면 신흥리에 사는 처녀로 그 가게는 알 수 없으나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부인을 두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후사도 없이 합의 이혼으로 끝났다.<sup>6)</sup>

그런데 그가 어린시절 가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당에 다녔으며, 글을 익혀 필적도 궁체(宮體)로 압전하게 써서 후일 가야금 악보(풍류, 산조)를 손수 채보하여 제자들에게 주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자의 외조모님(손재숙)도 그 악보를 가지고 가야금을 배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춤의 보법도 채보하여 김동민에게 주었는데 화재를 당하여 안타깝게도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재인광대 중에서도 비교적 유식한 그의 부친 강용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강태홍은 오히려 고향을 멀리 떠나려 했고, 당시 천시 받았던 가업에서 벗어나려 하였던 것 같다. 이는 조선시대의 유교사상과 더불어 반상의 격차가 사회를 지배하였던 시대에 예인들의 입지는 팔천(八賤), 즉 사노비, 승려, 백정, 무당, 광대, 기생, 상여꾼, 공장 등 여덟 계층의 천한 부류의 하나에 들 수 있는 무당재인광대 집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게의 영향과 그 입지에서 해방되어 자신만의 독자적 예술세계를 창출하기위해 끝없는 방황과 예기체험의 고뇌를 감당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세계를 구축하였다.

## 2. 청년기의 예술활동

강태홍이 가무악에 대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전남 광주에 있는 신청(神廳)에 잠시 있었다는 기록이 최초이다. 그리고 1911년 그가 19세 때 대구에서 활동한 흔적으로 보아 이 시기가 고향을 떠나 그의 방랑적 예능체험과 예술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경주권번에도 사범으로 있었는데, 그때가 강태홍의 나이 30대 초반이었다. 그 당시 14세인 최금란(1910-1974)을 비롯하여 후일 명창으로 이름을 날린 이소향 등이 그에게 사사를 하였다. 그 후 강태홍은 제자 이소향과 함께 가야금 병창으로

6) 백혜숙(1994), p. 105.

당대를 풍미하게 되었으며 그의 나이 34세가 되는 1926년에는 벌써 서울에서도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고 한다.<sup>7)</sup> 이소향은 경주출신으로 1932년 당시 조선음률협회가 주최한 전조선명창대회에 출전하는 등, 대단한 활약을 보인 명창이었다. 강태홍은 그 당시 대구와 경주를 오가며 제자를 가르치며 활동을 하였는데 그 시기에 경남 밀양에서 가끔씩 공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밀양의 한 절에서 학습하였는지 또는 밀양에 다른 스승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강태홍은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한강 이남을 두루 섭렵하며 그 지역의 명인들과 교류하면서 그의 예술적 미감을 비교하고 체험하면서 자신의 예술혼과 예기를 성숙시켰던 시기로 추측된다. 또한 1929년 대구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19세의 박차경(1911-1990)에게 풍류와 산조를 가르쳤다. 후일 부산에서 강태홍이 박송강이란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산조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김은경이 어린 나이(12세경)에 강태홍 스승님을 따라 부산 충무동에 있는 한 집으로 놀러 갔는데, 그 집에서 박송강을 만났다고 하였다. 이 박송강의 본명이 박차경이었음을 후일에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직도 부산에서는 박차경보다 박송강이 더 익숙한 이름이며 강태홍이 김동민 자택에서 운명한 직후 박송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김동민과 함께 시신을 감당하여 거두었다고 한다.<sup>8)</sup>

한편 1931년 강태홍은 일본 빅타레코드사에서 발매한 음반에 강태홍이 새타령을 가야금 병창으로 취입한 음반이 있으며, 이때 장고에 한성준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에 「흥부복거」 음반에 강태홍 가야금, 김초향 소리, 한성준 장고를 연주한 음반자료가 발견되었다. 이 음반자료에서 한성준이 명고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성준(1874-1941)은 근대 한국춤의 대부로 알려져 있고, 무형문화재 무용부문에서 승무, 학무, 태평무 등의 춤이 한성준 류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위의 활동기록으로 보아 당시 우리의 악이 가무기악의 종합체로 형성되어 있었던 특성을 감안할 때, 더불어 춤도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이를 통해 유추해 낼 수 있었다.

1932년 서울 사직동에서 발기한 조선악협회 요곡부(謠曲部)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조학진, 이동백, 오탈석, 강태홍 등이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산조를 연주 하였

7) 백혜숙(1994). p. 105.

8) 2007년 봄. 김은경 자택, 필자와의 대담.

다. 1933년에는 5월 10일 조선성악연구회가 발족되었는데 그 회원으로 송만갑, 정정렬, 이동백, 김창룡, 한성준, 조산선, 정남희, 오태석, 김연수, 강태홍, 박녹주, 이화중선, 김용승 등이 중심이 되어 주로 판소리활동을 하다 1936년에 해체되었다. 그 후 1938년 다시 조선음악연구소가 발족되어 한성준, 강태홍, 박녹주 등이 창단 회원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강태홍의 활동을 40세 이전을 청년기로 구분하여 자료가 있는 데로 발췌하여 보았다.

### 3. 장년기의 예술활동

강태홍이 40세 이후의 예술 활동을 '백혜숙, 강태홍의 생애와 음악' 논문의 기록을 발췌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강태홍이 41세이던 해에 대전에서 조선음률협회가 주최한 합동공연 형태의 일류 명창대회에 출전하였으며 1934년 5월에 조선음악연구회가 발족되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그 해 6월 조선음악연구회 첫 번째 작품인 연쇄창극 '유충렬전에서 정한담' 역을 맡아 출연하였다. 그 후 대구 달성권번에서 당시 16세 된 박귀희에게 산조와 가야금 병창을 가르치는 등 달성권번에서 여러 해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강태홍의 서울 활동은 1939년 3월 29-30일 서울 부민관에서 명창 이동백의 은퇴공연에 찬조로 출연하게 된 이후 서울에서의 활동 흔적이 없으며, 서울에서의 활동 당시에도 대동가극단과 경주 등지의 지방에서 공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다.

그런데 강태홍은 어쩐지 서울에서의 활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며 마치 못해 주위의 권유로 불러 다녔을 뿐 조용히 혼자서 음악에 몰입하거나 제자를 가르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활동을 접고 대구 등지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산조가락의 기틀을 세운 것으로 짐작되며, 그가 어려서 홍역을 앓다가 목에 바람이 든 탓으로 성음을 다치게 되었고, 그래서 점차 나이 들면서 판소리 쪽 보다는 가야

9) 백혜숙(1994), pp. 106-107.

금 병창과 산조의 과정을 통하여 독보적 경지에 이르렀고 산조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된다.

1937년에 박동진 명창과 경주권변에서 함께 활동하였으며 대구의 달성권변 울산의 울산권변을 거쳐 강태홍이 47세가 되던 1939년에 비로소 부산의 동래권변의 예능 사범으로 오게 되었다. 동래권변의 제자로서 원옥화(1928-1973), 강남월을 제자로 두었으며 그 이후 김춘지, 김애정, 조계선, 조유석 등이 있었고 1945년 이후 기녀가 아닌 일반인으로 대신동에 있었던 대동병원 원장 부인을 비롯하여 손재숙 등에게 정악과 산조를 가르쳤고 김온경, 공혜선, 정정술 등에게는 춤(고전무용)을 가르쳤다.

김온경에 의하면 1945년 광복 직후부터 강태홍은 부산시 서구 토성동에 있었던 김동민의 자택에 자주 출입하면서 김동민의 처 손재숙에게 가야금(정악, 산조)을 가르쳤고 김동민은 북장단을 익히며 시조창을 배우기도 하고 풍류회를 조직하여 정악을 연주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김온경이 종종 목격하였다고 한다.<sup>10)</sup>

김온경은 그 당시 강태홍에게 춤을 배운 사람으로 지금까지 생존하는 춤 제자이며 그때 배운 춤으로 굿거리춤, 입춤, 승무, 산조춤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동래권변 시절의 강태홍은, 부산에서 고전무용을 권변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로서 이것은 부산춤의 정체성 연구에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1950년 초 구연우, 신명숙, 하보희 등이 권변이 아닌 일반인들로서 순수 예능을 목적으로 가야금과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1948년부터 본격적으로 김동민은 그의 자택에서 민속무용연구소를 개설하여 강태홍이 최초 무용사범이 되었다고 한다.<sup>11)</sup> 이때부터 부산에서는 최초의 무용학원 형태의 무용연구소가 개설되었으며 김동민이 무용학원장이 되었다가 후에 민속예술학원으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이에 대한 사진이 김온경에게 있으며 이 논문에는 신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강태홍은 가야금뿐만 아니라 병창과 춤은 물론 대금, 피리, 양금, 해금, 단소 등 악 전반에 걸쳐 예기를 지닌 당대의 명인이라 할 수 있다. 강태홍의 이러한 다재다능한 천재성은 그의 생존 시에도 그를 아는 국악인들 사이에는 공인된

10) 2007년 봄. 김온경 자택, 필자와의 대담.

11) 앞 글.

사실이였다.<sup>12)</sup>

한편 강태홍은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술활동 이외에 안타까운 신병이 있었는데, 곧 아편이 그것이었다. 왜 그랬는지,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온경의 실담을 그대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강태홍은 예술과 아편을 떠나서는 무의미한 삶이었고, 그의 예술은 그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여 신의 가야금이라고 까지 칭송하였다. 아버지가 항상 그 약을 준비하였다가 강태홍이 아버지의 자택에 들리시면 그것을 주었으며 강태홍은 약을 본인 스스로 주사하였고, 그 뒤 가벼운 몸짓으로 하여 나에게 춤을 가르쳤다. 약기운이 떨어지면 스스로 중단하였으며, 다른 곳에 떠나 있다가도 그 약이 필요할 때면 아버지의 자택을 찾아 왔다. 아버지는 그러한 강태홍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 차례 약을 끊게 하기위해 집안에 거의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어려운 간병을 시도하였던 일도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 약을 끊고 평소에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찾아 건강한 모습이 되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약을 끊었다고 생각되어 외출을 허락하게 되면 또다시 약을 시작하여 아버지께서 상당히 실망이 컸다고 하였다. 그래도 강태홍의 재능이 아까워 다시 오게 하여 나에게 춤을 가르치게 하였다고 지난 일들을 술회하였다.<sup>13)</sup>

이렇게 강태홍과 아편은 떼어 놓을 수 없는 운명적 삶이었다. 그러나 강태홍은 너무나 깨끗한 천성을 지녔기에 약에 취한 상태에서도 더욱 가무악에 심취하여 연주하고, 가르침에 열을 올릴 정도로 정갈하고도 고매한 성품을 지녔으며 또한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는 말년에는 외부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김동민의 자택에서 기거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명실 공히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한바탕을 완성하였고, 1957년 2월 3일 김동민의 자택에서 구름처럼 살다가 풍운의 삶을 마감하였다.<sup>14)</sup>

12) 황병기(1993년). 효산 강태홍 탄생 100주년 기념제 팸플렛, 축하의 말씀 중에서, p. 7.

13) 2007년 봄. 김온경 자택. 필자와의 대담.

14) 앞 글.

### Ⅲ. 강태홍의 춤과 미의식

#### 1. 춤의 종류

강태홍은 다양한 예기를 지녔지만 그가 예인으로서의 활동 기록은 주로 가야금이었다. 그 당시 가야금 하면 강태홍, 강태홍 하면 가야금이라 할 정도로 예인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태홍은 가야금의 명인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는 그가 남긴 춤과 그 춤의 세계를 재조명함에 있어서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한 명인에 의해 형성된 춤이 소멸되지 않고 오롯이 현재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는 현상은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 춤은 활기로서 몸속에 추임이 일어나고, 춤은 운기를 일으키게 하여 마음을 추스리고, 춤은 하늘과 땅에 심신을 추켜세워 생기로서 숨을 쉬게 만드는 율조의 소산이다. 그래서 춤을 행할 때는 춤을 춘다고 하고 몸과 마음을 음양의 조화로서 다스리게 한다.

강태홍이 평소에 즐겨 가르쳤던 춤은 굿거리춤, 입춤, 승무, 산조춤, 수건춤, 화랑무, 초립동 등 이었다. 그중 강태홍류 수건춤, 화랑무, 초립동은 안타깝게도 그 전승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명칭만 구전으로 전할 뿐이다.

김온경은 굿거리춤, 입춤, 승무, 산조춤을 사사함으로써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건춤, 화랑무, 초립동은 그 당시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공연까지 한 것을 목격했다고 하나 어찌된 영문인지 춤을 계속 추지 않아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 때가 1950년 초 경이었으며 수건춤은 오늘날 살풀이춤의 모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방이나 사랑방에서 허튼춤의 일종으로 살풀이장단에 즉흥적으로 추어진 춤으로 부산에서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았으며, 화랑무와 초립동은 당시 강태홍의 창작무였다. 그런 까닭으로 김동민은 강태홍으로 하여금 정형화 되어 있는 굿거리춤, 입춤, 승무, 산조춤 만을 김온경에게 사사 받게 하였다고 한다.

#### 가. 굿거리춤

예로부터 우리춤은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기 때문에 장단과 음률의 명칭에 따라 춤의 명칭도 함께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면

긱거리춤, 살풀이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면 살풀이춤, 타령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면 타령춤, 산조음률에 맞추어 춤을 추면 산조춤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로 풀이된다.

긱거리란 원래 긱에서 쓰여 지는 장단의 명칭에서 유래 되었으며, 특히 긱거리장단은 경상도 지방의 대표적인 춤장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 긱거리춤은 긱거리장단에 맞추어 추는데 한국춤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춤으로, 춤을 처음 배울 때 반드시 이 긱거리춤 부터 시작한다. 강태홍은 처음 춤을 가르칠 때 긱거리춤을 시작으로, 발디딤부터 서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학습시켰다. 앞에서 시범을 보일 때는 양 손을 허리에 붙이고 입장단으로 몸을 지석거리면서 발 디딤만 가르쳤다. 그 입장단은,

“정. 정 정.정 저정. 정 정”

“저정. 정 정.저 저정. 정정”

이렇게 입장단으로 긱거리장단의 한 배를 맞추었고 발 디딤이 완전히 장단의 한 배를 타면서 무릎 굴신이 익숙해 질 때까지 계속하였다. 이 과정이 무척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며, 그 기간이 몇 달이 걸렸다고 한다.<sup>15)</sup>

강태홍은 긱거리춤의 발 디딤의 명칭을 느린걸음, 중걸음, 평걸음, 까치걸음, 뒷걸음 등이었는데 후일 김동민이 느린디딤, 중디딤, 평디딤, 겹디딤, 까치디딤으로 고정하여 지금까지 불리어지고 있다. 발디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느린디딤 : 1장단을 4박으로 나누어, 1장단에 한 번씩만 디딤하는 동작이다. 첫 박에 왼발을 앞으로 내어 딛고 오른발을 왼발에 붙이면서 바른 자세로 무릎을 굴신하면서 호흡하는 형식이다.
- 2) 중디딤 : 1장단에 두 번씩 디딤하는 동작이다. 첫 박에 왼발을 앞으로 내어 딛고 오른발을 왼발에 끌어 붙이고, 2박에 굴신하면서 3박에 다시 오른발을 앞으로 내어 딛고 왼발을 오른발에 붙이면서 굴신하는 형식이다.
- 3) 평디딤 : 매 박자마다 한 번씩 디딤하는 동작이다. 첫 박에 왼발을 앞으로 내어 딛고, 둘째 박에 오른발을 내어 딛고, 셋째 박에 왼발을 앞으로 내어 딛고 넷째 박에 오른발을 내어 딛는 형식이다.

15) 앞 글.

- 4) 겹디딤 : 디딤을 연거푸 겹으로 딛는 동작이다. 첫 박에 왼발을 앞으로 내어 딛고 오른 발을 왼발에 붙이는 동시에 둘째 박에 다시 왼발을 앞으로 내어 딛는 형식이다.
- 5) 까치디딤 : 박자를 의식하지 않고 잔발 딛기를 행하는 동작이다. 마치 까치가 짧은 다리로 종종걸음 치는 모양새를 모방한 형식이다.

강태홍 디딤법의 특징은 먼저 왼발부터 시작한다. 그는 왼발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가르치면서, '상민층은 오른쪽부터, 양민층은 왼쪽부터 하였다' 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치마를 입을 때도 양가의 여인들은 치맛자락을 왼쪽으로 여미게 하고 상민가(백정, 기녀, 노비 등의 여인들은 치맛자락을 오른쪽으로 여민다고 했다. 그로 인해 김은경은 왼쪽 발부터 먼저 디딤하는 것이 몸에 익숙하였는데, 1950년 중반부터 신무용이 부산에 도입되면서 대부분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춤을 내기 때문에 많은 혼돈이 있었다고 하였다.<sup>16)</sup>

발 디딤은 어느 쪽이 먼저 딛는 것이 원칙인지 아직 그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궁중정재의 경우 홀기의 기록에는 우측부터 먼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는 쪽에서 보면 우측이지만 행하는 쪽에서는 좌측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기준하여 기록하였는지가 애매하다.

본 연구자의 소견으로 볼 때 과거 우리 전통춤의 경우, 행위자 쪽에서 왼쪽이 먼저인 경우가 많고 서양의 무용인 경우 또는 외국 정서의 영향을 받은 춤은 오른쪽을 먼저 행하는 현상으로 보아서 강태홍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춤을 추는 행위자는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강태홍의 학습 방법을 본 연구에서 숙지하여 보았다.

팔사위로는 내들임사위, 평사위, 겨드랑사위, 머리사위, 겹머리사위, 어깨춤사위, 태극사위, 잉어디딤 사위, 나비사위, 윷놀이춤사위, 허리감는사위, 맺는사위, 구름타는사위, 합사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팔사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6) 내들임사위 : 춤을 처음 낼 때 행하는 동작이다. 2장단을 보낸 후 한쪽 팔을 1장단 또는 2장단 동안 서서히 수평으로 들어 올리는 형식이다. 이 때 다른 한쪽 팔은 여자의 경우 치마를 살짝 여며서 버선발이 보이도록 한다<사진 1>.

16) 앞 글.

- 7) 평사위 : 양 팔을 옆으로 수평으로 들어 앞으로 또는 뒤로 평디딤하는 동작이다<사진 2>.
- 8) 겨드랑사위 : 양 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한쪽 팔은 어깨에 메고 다른 한쪽 팔은 반대쪽 겨드랑에 붙이는 동작이다<사진 3>.  
1박에 양 팔을 옆으로 벌리면서 2박에 굽신하고, 3박과 4박에 오른팔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왼팔은 오른쪽 겨드랑에 붙이는 형식이다. 이 동작을 양쪽으로 행한다.
- 9) 머리사위 : 왼팔은 옆으로 펴고 오른팔은 머리 위를 가볍게 돌려주는 동작이다. 박자에 관계없이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돌려 펴는 형식이다<사진 4>.
- 10) 겹머리사위 : 양팔을 머리 위에서 차례로 돌려 펴는 동작이다. 왼팔은 머리 뒤쪽에서 앞쪽으로 돌리고 오른팔은 머리 앞쪽에서 뒤쪽으로 돌리는 형식이다<사진 5>.
- 11) 어깨춤사위 : 어깨를 호흡으로 어르는 동작이다. 매 박자마다 한 번씩 좌우로 어깨를 돌려 가볍게 지석거리는 형식이다<사진 6>.
- 12) 태극사위 : 양팔을 태극무늬 모양으로 행하는 동작이다. 한쪽 팔은 배 앞으로, 다른 한쪽 팔은 등 뒤쪽으로 돌리면서 태극무늬 형태를 만들고, 다시 반대쪽으로 반복하는 형식이다<사진 7>.
- 13) 잉어디딤사위 : 물고기가 좌우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동작이다. 잔걸음 딛기를 행하면서 태극무늬 모양을 그리는 형식이다<사진 8>.
- 14) 나비사위 : 나비가 나르는듯한 날개 모습의 동작이다. 양팔을 옆으로 펴서 양쪽 방향으로 차례로 몸을 좌우로 곡선을 그리며 나르는 형식이다<사진 9>.
- 15) 윗사위 : 양팔을 위로 올려서 행하는 동작이다. 머리 위에서 손목을 차례로 돌리면서 몸을 지석거리는 형식이다<사진 10>.
- 16) 허리감는사위 : 양팔을 앞뒤로 차례로 허리를 휘감는 동작이다. 왼팔을 앞으로 오른팔은 등 뒤로 서로 엇갈리게 감어주고 다시 반대로 행하는 형식이다<사진 11>.
- 17) 맺는사위 : 춤을 추어 나가다가 제자리에서 맺어주는 동작이다<사진 12>.
- 18) 구름타는사위 : 호흡을 끌어 올려 무중력 상태에서 몸을 상승시키며 좌우로 반전하는 동작이다. 이때 왼팔과 왼발이 한 쌍이 되고 오른팔과 오른발이 한 쌍이 되어 좌우 반전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행하는 형식이다<사진 13>.

19) 합사위 : 양팔을 앞으로 서로 엇갈리게 모아주는 동작이다. 왼팔은 아래로 오른팔은 위로 하여 서로 겹치게 앞으로 모았다가 옆으로 퍼 주는 형식이다(사진 14).

이상으로 굽거리춤을 처음 배울 때, 주로 행하는 디딤새와 팔 사위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 나. 입춤

이 춤은 굽거리춤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화된 춤이다. 즉 굽거리춤이 한 단계 발전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춤의 명칭인 ‘입춤’에서도 나타나듯이 춤을 바로 세운다는 뜻으로 설립(立)자를 사용하여 입춤이라고도 하고, 춤에 처음 입문한다는 뜻으로 들입(入)자를 사용하여 입춤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내용은 모두가 춤을 처음 배우면서 바르게 세운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맨손춤의 대표적인 명칭이라 할 수 있다.

강태홍의 입춤은 굽거리춤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자진몰이 부분이 첨가되어 속도의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자진몰이 춤사위는 아주 다양하며, 섬세한 기교가 돋보이는 춤이다. 또한 이 입춤은 손수건 모양의 하얀 작은 수건을 손에 들고 추기도 하였는데 후일 이 춤이 강태홍의 수건춤의 모태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입춤의 춤사위는 굽거리춤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진몰이 부분의 춤사위만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으며 외발디딤사위, 학사위, 좌우돌림사위, 갈매사위, 뒷갈매사위, 연풍대, 배김사위 등이 주로 많이 행하여진다. 입춤의 춤사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까치디딤사위 : 한쪽 발만 연거푸 딛는 동작이다(사진 15).
- 2) 학사위 : 양 팔을 앞뒤로 벌려 펴고 제자리에서 2장단 동안 앉았다 그대로 다시 2장단 동안 가만히 일어나는 동작이다. 춤사위의 모양새가 학이 날개를 벌려 내려앉는 형태와 비슷하게 행하는 형식이다(사진 16).
- 3) 좌우돌림사위 : 좌우로 번갈아 가며 도는 동작이다(사진 17).
- 4) 갈매사위 : 양팔을 옆으로 벌려서 겹디딤으로 옆걸음 하는 동작이다. 춤사위의 모양새가 갈매기가 나르는 형태와 비슷하게 행하는 형식이다(사진 18).

- 5) 뒷갈매사위 : 뒤를 향하게 하여 양 팔을 옆으로 펴 들고 겹디딤하는 동작이다 <사진 19>.
- 6) 연풍대사위 : 돌면서 공간이동을 행하는 동작이다. 이 동작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춤사위가 구성되어 있으며 빠른 회전으로, 반드시 춤의 마무리에 행하는 형식이다<사진 20>.
- 7) 배김사위 : 끝맺음으로 배김사위를 행하는 동작이다. 이 배김사위는 경상도 덧배기춤에서 발체되어 예인 춤으로 다듬어진 형식이다<사진 21>.

이상 강태홍의 입춤은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며, 토속성이 강조되어 부산지역의 굿거리장단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춤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승무

김은경은 승무를 홀 춤으로 학습 받았지만, 스승님께서 ‘이 승무는 쌍승무로 추면 모양이 좋다’<sup>17)</sup>고 말씀하셨다고 회고한다. 그런데 강태홍의 승무는 김은경이 어린 시절 공연도 많이 하셨지만 스승님이 작고한 후 중단되었다가 다른 유형의 승무를 배우기 시작한 후 부터 다른 승무의 춤사위와 뒤섞이게 되어 그냥 그 춤사위를 놓치고 말았다고 한다.<sup>18)</sup> 그러나 애써 춤사위를 더듬어 보면 단편적이지만 몇몇 가락과 함께 춤의 윤곽만이 기억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

강태홍의 승무는 비교적 그 춤사위가 섬세한 가락이 많았고 장삼을 힘차게 뿌리는 시원스러움 보다 장삼자락을 감아 올려 머물러 풀어내는 아기자기한 여성스러움이 강조되어 있다. 그런데 북가락 만은 다른 유형의 북가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현재까지 행하여지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강태홍의 북가락은 화려하고 웅장함 보다는 섬세하고 단아한 장단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매방류와 한영숙류의 북가락으로 양분되어 행하여지고 있는 현상에서 강태홍류의 북가락은 한성준-한영숙으로 이어지는 것과 흡사한 유형이나 북채의 놀림 등에 있어서 토속성이 더 강조되어 있다. 이는 강태홍이 한성준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인으로 서로 예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7) 앞 글.

18) 앞 글.

복식은 처음에는 옥색 바지저고리에 남색 장삼을 입고 추계 하였으며 연구자 모친께서 중학생이 된 후부터 남치마에 흰색 장삼을 입기도 하였는데 주로 남색 장삼을 많이 착용하였다. 부언하면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예능보유자인 신명숙(1940년생)은 1952년에 강태홍 문하에서 직접 가야금 산조를 배웠던 현재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제자이며, 강태홍에게 춤도 배웠다고 한다.<sup>19)</sup> 그래서 신명숙이 1954년경 전국무용경연대회에 승무로 출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라. 산조춤

이 산조춤은 강태홍의 산조 음악을 반주로 하여 그 음악에 맞추어 추는 홀춤이다. 강태홍은 김온경에게 춤을 가르치면서 먼저 굿거리춤, 입춤, 승무를 학습시켰고 맨 나중에 이 산조춤을 학습하였다.

음악은 그 자체로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춤을 추는 행위자는 음악의 실황에 민감하고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춤꾼일수록 명무의 칭호를 들었던 사례가 많았다. 근대 한국무용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한성준’도 명고수로 유명하였고 강태홍 역시 가무기악을 두루 섭렵한 예인으로서, 특히 가야금의 명수였다. 이런 강태홍이 자신의 가야금 산조와 더불어 산조춤을 형성시킨 것은 당연한 순리이다.

현재 강태홍의 춤 제자인 김온경이 보존하고 있는 이 산조춤은 강태홍의 대표적 명작무라 할 수 있다. 강태홍이 산조춤을 가르칠 때도 산조 음악을 그 음으로 부르면서 학습하였다고 한다.<sup>20)</sup> 내드림으로 연주되는 가락을 입으로 읊었고 그 내드림에 맞추어 걸어 나와 앉아서 시작하게 했다.

진양조 부분에서 “동칭. 정. 다칭. 정...”으로 구음을 읊으면서 고음으로 가락이 올라 갈 때는 부채를 들어 올리면서 멀리 팔을 들게 했고 저음으로 가락이 내려 갈 때는 팔과 몸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방식으로 춤사위를 학습시켰다. 말하자면 강태홍은 음악과 춤이 같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기법을 강조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음률은 고음으로 가는데 몸을 낮추어 춤을 추거나, 음률이 저음으로 가는데 몸을 높여 상승하게 하면 음악과 춤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강태홍은 그의 산조

19) 2002년 가을. 신명숙 자택. 신명숙과 김온경, 필자와의 대담.

20) 2007년 봄. 김온경 자택. 필자와의 대담.

춤 만은 자신의 가야금 산조가락 속에서만 춤이 형성 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산조음악에는 전혀 춤이 맞지 않는 특별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강태홍 산조음악을 들으면 저절로 춤사위가 자연스럽게 풀려 나오도록 신비스럽게 춤이 구성되어 있다.

복식은 처음에는 바지저고리에 남색 전복을 입고 머리에는 복건을 쓰고 추게 하였는데 중학생이 된 후부터 홍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추게 되었다. 춤사위로는 굿거리춤과 입춤에서 행해진 춤사위를 모두 사용하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된 춤사위를 구사하고 있다. 음악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중모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주곡 보다 훨씬 짧게 짜여져 있다.

강태홍의 산조춤은 합죽선을 들고 추기 때문에 부채를 한 번씩 폼다 접는 부채퍼는사위를 비롯하여 쌍머리사위, 머리휘감는사위, 소매걸음사위, 실패감는사위, 부채돌림사위, 허리굽힘사위, 견주는사위, 잉어디딤사위, 앉음사위, 양팔돌림사위, 끝맺음사위 등이 추가로 행해진다. 산조춤의 춤사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채퍼는사위 : 오른손에 합죽선을 들고 춤을 추다가 한 번씩 부채를 펴는 동작이다. 부채를 펴서 절제되었던 춤의 매듭을 풀어내어 시원하게 마음을 열어 주는 형식이다<사진 22>.
- 2) 머리휘감는사위 : 한 팔만 머리 위에서 반복적으로 돌리는 형식이다. 왼팔은 치마를 여며 잡고 부채를 든 오른팔은 머리위에서 반복해서 돌리면서 한 바퀴 도는 형식이다<사진 23>.
- 3) 쌍머리사위 : 겹머리사위를 한 번 더 반복하는 동작이다.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행하는 형식이다<사진 24>.
- 4) 소매걸음사위 : 양쪽 소매를 차례로 거두는 형태의 동작이다. 왼팔을 왼쪽 옆으로 펴서 오른팔을 왼팔 소매 끝에서 겨드랑이까지 스치고, 다시 오른팔을 오른쪽으로 펴서 왼팔을 오른 팔소매 끝에서 겨드랑이까지 스치는 형식이다<사진 25>.
- 5) 실패감는사위 : 실패에다 실을 감는듯한 손목 놀림의 동작이다. 양 팔목을 차례로 서로 엇갈리게 돌리면서 어깨놀림으로 호흡하는 형식이다<사진 26>.

- 6) 부채돌림사위 : 오른손의 부채를 편 채 머리위에서 반복적으로 돌리는 동작이다. 쌍머리사위를 부채를 펴서 행하는 형식과 같다<사진 27>.
- 7) 허리굽힘사위 : 무릎을 많이 굽혀서 굴신하는 동작이다. 몸을 옆으로 하여 허리가 45도 정도로 굽혀서 몸의 중심을 완전히 하지 쪽으로 향하게 하는 형식이다<사진 28>.
- 8) 견주는사위 : 반주자 앞에서 어르는 동작이다. 잉어걸음사위를 행한 후 반주자 앞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며 어르는 형식이다<사진 29>.
- 9) 앉음사위 : 부채를 편 채 앉는 동작이다. 오른팔로 부채를 편 채 치마를 가볍게 여며 잡으면서 오른쪽 사선을 향해 앉는 형식이다<사진 30>.
- 10) 양팔돌림사위 : 양팔을 차례로 돌려주면서 동선을 이동하는 동작이다. 왼팔은 앞으로 옆고 돌리고 오른팔은 뒤로 재치며 돌려주는 형식이다<사진 31>.
- 11) 끝맺음사위 : 산조춤 말미에 행하는 동작이다. 부채를 편 채 천천히 앉아 오른 무릎을 약간 세우고 부채를 든 오른손을 가슴 앞으로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형식이다<사진 32>.

이상의 춤사위들은 1997년도 김온경의 「강태홍류의 산조춤 연구」에서 이미 발표된 춤사위로서,<sup>21)</sup> 그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였다. 그리고 춤사위 사진은 강태홍의 명작무인 산조춤에 그의 모든 춤사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조춤에 기준하여 강태홍춤의 직계 제자인 김온경이 직접 시범으로 촬영하였음을 부언한다.

#### 마. 그 외 춤들

강태홍의 춤들 중에서 수건춤, 화랑무, 초립동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강태홍의 춤 레퍼토리들이다. 수건춤은 입춤 형태에서 긴 수건을 들고 추는 형식으로 살풀이장단에 춤을 추었으며 이 춤을 김온경의 친구 동생인 하보희가 배웠다고 하며 현재는 그 행적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sup>22)</sup>

화랑무는 화랑의 용맹한 기상을 춤으로 표현한 강태홍의 창작무였다. 씩씩한 기상으로 뛰는 동작이 많았으며 활을 들고 추다가 등에서 메고 있는 화살을 뽑아 멀리

21) 김온경(1997). 강태홍류의 산조춤 연구, 『한국무용연구』 15, pp. 30-34.

22) 2007년 봄. 김온경 자택. 필자와의 대담.

쓰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춤을 부산 동대신동에 거주했던 정정술(본명, 정정숙)이 추었는데, 6.25 동란 때 김은경과 위문 공연을 함께 다녔다고 한다. 이 때 김은경은 토성초등학교 6학년 이었고 승무와 산조춤을 추었으며 정정술은 부산여중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화랑무를 추었다고 자세히 기억했다.

초립동은 초립을 쓴 소년으로 꾸며 천진난만하고 장난꾸러기 두 소년이 귀엽고 짓궂은 춤사위로 짜여진 해학적인 춤이었다고 한다. 이춤을 김은경의 친구인 하인순과 김은경의 먼 친척별 되는 최미용자가 추었으며 1951년 11월 제1회 민속무용연구회 무용발표회 때 부산극장에서 추었다고 한다. 이춤 역시 당시 강태홍의 창작무였다.

이상으로 강태홍의 춤을 열거하였는데, 당대의 명인들은 다양한 전통예기를 섭렵하고 같고 닮았으며 또한 제자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새로운 춤을 개발하여 재구성 창작하기도 하였음을 위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강태홍의 춤을 전수받았던 그 당시 제자들의 행적을 현재 알 길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행히도 김은경에 의해 그 춤의 명맥을 이어 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전통춤을 연구하는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2. 강태홍의 미의식

미관(美觀)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름다워서 볼만한 모양이나 됃됨이”라 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사물이 보이거나 듣기에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할 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무용미관이란 무용이 관조자에 의해 보여지거나 느껴질 때 좋은 느낌을 갖는 모양이나 됃됨이에 대해 구명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강태홍의 무용미관은 미의 본질 구조인 진, 선, 미를 관조하는 그 시대의 미의식에 대한 가치관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강태홍의 예술적 미의식을 194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명해봄으로써 그 시대적 가치관이 한 예인의 미의식에 어떻게 접목되어 나타났으며, 관조자의 미감은 예술행위자를 통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940년대는 일제강점기로서 그 당시 시대적 욕구는 우리민족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한'의 정서에서 좀 더 밝은 쪽으로 나아가려는 당위성과 미의식이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추구되는 시기였다. 강태홍은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오히려 멋으로 승화시켜 비애미와 우아미 그리고 해학 등으로써 그 멋을 형성하였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멋의 유형은 해학적인 골계미, 슬픔과 고독의 비애미, 화평하고 부드러운 우아미, 비현실적 초인적인 유현미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 강태홍의 무용미감은 자연 결에서 베어나오는 우아미라 할 수 있다. 이 우아미에 대해 김온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아미는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어떤 저항도 느끼는 일이 없이 조용히 그 아름다움을 만족할 수 있는 미를 말한다. 그래서 우아미는 모순, 갈등이 없어야 하며 모든 갈등을 포함한 것은 비극적이므로, 우아미는 이것이 없는 조화적이고 평화적인 질서 있는 통일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 우아미는 외적으로 양이 확대 되면 화려미가 되고 양이 적어지면 전아미를 구성하게 된다. 강태홍의 무용미는 전아미로서 우아미를 골격으로 하되 우아미의 양에 있어서 화려함을 축소시킨 절제되고 압축된 아름다움이며 풍성하고 넉넉한 화려함이 아닌 투명하고 맑은 간결함이 주된 미의 구성 요소이다.<sup>23)</sup>

강태홍은 그 당시 신분상으로 가장 천시 받았던 시대에 살면서도 화평하고 전아함, 그리고 맑은 아름다움으로 미감을 구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도의 절제되고 간결한 표현기법으로 '한'을 승화시켰다. 이것은 불행할 때 행복해지려는 자연스런 욕구가 예술행위로 표출됨으로써 현실과 다른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려는 것과 같다. 이러한 강태홍의 미의식은 점차 시대가 바뀌므로써 그 빛을 더해가기 시작했다.

1960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작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보다 다양해진 미의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물질문명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며 실용성이 강한 생활철학을 선호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으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인간의 사회적 인격평등과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서 한과 풀이의 미학은 점차 뒤안길로 밀려나고 개인적이고 보다 표현적인 미의식으로 진화되었다. 오늘날에는 에코페미니즘이

23) 김온경(1997). 강태홍류의 산조춤 연구, 『한국무용연구』 15, p. 49.

등장하면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연구하고 배우며 자연의 이치와 섭리 속에서 지혜를 터득하고 깨닫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강태홍의 춤과 그 속에 있는 담겨 있는 미의식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강태홍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자신의 음률에 자연의 소리를 담아 재창조하는 예인이었다. 특히 그는 평소에 자연의 소리에 대해 예술적 충동을 발현시키는 대단한 미적 감각의 소유자였다. 깊은 산사의 바람소리, 지우산에 떨어지는 소낙비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조랑말의 말굽소리 등을 가야금 줄에 실어 표현하면서 자주 가야금을 타셨다고 김동민은 회고하였다.<sup>24)</sup>

강태홍의 미의식 역시 자연 결에서 배어 나온, 우아미에서 그 양이 압축된 전아미로서, 절제를 골격으로 하는 자연결의 미라고 할 수 있다. 인위적이면서도 시원스러움, 그리고 동적인 현대적 미감과는 대조적으로 극히 인위성을 배제하고 절제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듯하면서도 자연 결의 다양함을 구사하는 정적인 미감이라 할 수 있다. 즉 화려하고 풍성함 보다 전아하고 소박함, 그리고 다양하고 과장됨 보다 간결하고 차분함이 강태홍의 미의식으로서의 무용미감이다.

이와 같이 극히 절제된 표현기법과 내면에 흐르는 압축된 미감은 암울했던 시대의 이상적인 미의식이었으며, 강태홍의 무용미관 역시 현실정서와 대비되는 미의식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오늘날 무용예술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 대칭되는, 보다 간결하고 절제된 미의식으로써 청량제 혹은 안정제의 역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무용의 미래지향적 미의식을 조명해 볼 때 그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태홍의 무용미관은 새로움을 창조하고 변화하고 진화하는, 진취적이고 동적인 미감에 대비되는 극히 안정적이며 자연의 결이 압축되어 있는 정적인 미의식으로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춤의 확고한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본토양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4) 1994년 6월 22일. 부산문화회관 중국장. 필자와의 대담.

## IV. 결 론

본 연구자는 1893년에 출생하여 1957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외길 인생을 살다간 명인 강태홍이 남긴 춤과 그의 미의식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강태홍은 그 당시 예인의 가게에서는 어전광대인 사고참봉을 지낸 강용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러한 출생배경으로 가무악의 재능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대물림되어 다재다능한 예인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지방을 두루 섭렵하면서 강태홍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한 예인이었다.

그 후 1923년경부터 경주권번의 사범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명창으로 이름을 날린 이소향과 최금란을, 1929년 이후 대구 달성권번에서 박차경(박송강), 박귀희 등을 가르쳤으며 1939년 이후 부산 동래권번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원옥화, 강남월, 김춘지, 김애정, 조계선, 조유석 등을 가르쳤다.

부산에 정착하게 되면서 김동민을 만나게 되었고 1945년 이후 그의 자택에서 처음으로 일반인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때 손재숙이 정악과 산조를, 김온경, 공혜선, 정정술(정경숙), 하인순, 최미용자 등은 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다가 1948년에 김동민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민속무용연구소를 개설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일반인들을 교육하게 되면서 1950년 초에 구연우, 신명숙, 하보희 등이 춤과 가야금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강태홍은 부산에서 일반 순수예능인을 가르치는 최초의 인물로서 활동을 계속하다가 김동민 자택에서 1957년 2월 3일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강태홍이 남긴 춤은 굿거리춤, 입춤, 승무, 산조춤 등이며 수건춤, 화랑무, 초립동 등은 아쉽게도 소멸되고 말았다. 특히 그가 마지막 남긴 산조춤은 가야금 산조와 함께 강태홍의 명작무로서, 굿거리춤, 입춤, 승무의 북가락과 함께 그의 춤 제자인 김온경이 보존 전승하고 있다.

강태홍의 미의식은 불우한 시대에 살면서도 화평하고 안정적인 전아미를 구사하였으며 자연미에서 추구되었다. 즉 대자연의 바람 소리, 소낙비 소리, 시냇물 소리, 새 소리, 개구리 울음 소리, 말뼉굽 소리, 대바람 소리 등에 영감을 받아 그의 가야금 소리에 얹어 산조 음을 구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새가 나르는 모양새, 구름이 떠

도는 모양새 등 자연의 형태 안에서 모양새를 찾아 사람 몸의 모양새대로 춤사위를 구사하였다. 따라서 강태홍의 미의식은 자연 결에서 베어 나온, 우아미에서 그 양이 압축된 전아미로서, 절제를 골격으로 하는 자연결의 다양함을 구사하는 정적인 미의식이라 할 수 있다. 즉 화려하고 풍성함 보다 전아하고 소박함, 그리고 다양하고 과장됨 보다 간결하고 차분함이 강태홍의 미의식이다.

본 연구자는 강태홍이 천, 지, 인의 자연 섭리를 존중했고 인간 또한 그 자연의 일부로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회향한다는 예술철학을 구사하였던 예인이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새삼 인지하게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강태홍의 춤 연구는 전통춤 발굴의 1차적 원조 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강태홍이 남긴 춤에 대해서 개별적 접근을 통하여 춤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 ■ 사진참조



〈사진 1〉 내드림사위



〈사진 2〉 평사위



〈사진 3〉 겨드랑사위



〈사진 4〉 머리사위



〈사진 5〉 겹머리사위



〈사진 6〉 어깨춤사위



〈사진 7〉 태극사위



〈사진 8〉 잉어디딤사위



〈사진 9〉 나비사위



〈사진 10〉 윗사위



〈사진 11〉 허리감는사위



〈사진 12〉 맺는사위



〈사진 13〉 구름타는사위



〈사진 14〉 합사위



〈사진 15〉 까치디딤사위



〈사진 16〉 학사위



〈사진 17〉 좌우돌림사위



〈사진 18〉 갈매사위



〈사진 19〉 뒷갈매사위



〈사진 20〉 연풍대사위



〈사진 21〉 배김사위



〈사진 22〉 부채퍼는사위



〈사진 23〉 머리휘감는사위



〈사진 24〉 쌍머리사위



〈사진 25〉 소매견움사위



〈사진 26〉 실패감는사위



〈사진 27〉 부채돌림사위



〈사진 28〉 허리굽힘사위



〈사진 29〉 견주는사위



〈사진 30〉 앞음사위



〈사진 31〉 양팔돌림사위



〈사진 32〉 끝맺음사위

#### ■참고문헌

김은경(1997). 강태홍류 산조춤 연구, 『한국무용연구』 15, 한국무용연구회, 30-34, 49.

백혜숙(1994). 『강태홍의 생애와 음악』, 도서출판 민속원.

정해임(1993). 姜太弘流 伽倻琴 散調에 關한 研究, 효산 강태홍 탄생 100주년기념 학술발 표회 논문집, 1-2.

윤광봉(1985). 『한국 연희시 연구』, 이우출판사.

『효산 강태홍 탄생 100주년 기념』 팜플렛. 백혜숙: 효산의 음악세계, 17-20, 1993.

『효산 강태홍 탄생 100주년 기념』 팜플렛. 황병기: 축하의 말씀, 7, 1993.

논문투고일	2007년 10월 31일
심사일	11월 3일
심사완료일	11월 20일

## Abstract

### Master, Mr. Kang Taehong's Arts and Life

Yeosuk Yun  
*Former Professor of Dance*  
*Busan Art College*

This research is for an artiste who had lived like a clouds in his art and lif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person who left his behind the Korean Traditional Dances through his life and an art world, and how he had effected and worked out the artistic aesthetic through his birth and a growth process in a human's intrinsic heartstrings.

An artiest 'Kang Taehong' was very famous expert at Gayageum Sanjo at last period. He was not only very good at dance but also as a artiste of many 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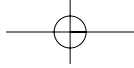
There are many kinds of dances left his behind 'Goodgeolychoom', 'Ibchoom', 'Seungmoo', etc with a Gayageum Sanjo.

This research is very important meaning for us that the tradition goes on up to now in Busan. I hope keep more meaning of that requires further more researches, and the quality of dances and organization and aesthetic research the essential point.

He had settle down did the office of as a master of the DongRae GyunBeon in Busan since 1939. He had not only tried to coach artistic studying which are the songs, dances and instrumental musics to the Gisaengs of GyunBeon but also he was the first person to teach madams and their children of the two upper classes of old Korea. Therefore, Kang Taehong made the first foundation of Dance, and as a master of the first dance institute called 'Korea Traditional Dance Institute'(Principal : Kim Dongmin).

Specially, he had left behind 'SanJo Dance' in his last few years as a master piece with a 'Gayageum Sanjo'. Kim Onkyung who is a direct disciple and has been preserving, transmitting of Kang Taehong's dances which are 'Goodgeolychoom', 'Ibchoom', 'Seungmoo' with Drum rhythm.

The beautiful sight of dance of Kang Taehong had been persuitted peaceful and stable even in an age of unfortune.



Mr. Kang Taehong always had respected and believed the provision of great nature and human, and that human goes back to the nature as one of the nature.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s very meaningful as a first work to the future students, and I will leave behind and record everything of dance in individual approaching like he had done.

**keywords:** Kang Taehong(강태홍), Traditional dance(전통무용), a view of art(예술관), beautiful sence of dance(무용미감), elegance beauty(전아미), natural beauty(자연미)

